“봉암사결사 의례·장엄 개혁, 한마음선원이 계승”

최원섭 연구원, 대행선연구원 계절발표회서 주장

1947년부터 2년 6개월간 진행
봉암사결사 ‘부처님 법대로’ 강조
의례 장엄 개혁, 종단 계승 ‘부족’

한마음선원, 기도 아닌 법회 중심
신중탱화, 산신각, 칠성각 등 전무
“선원, 봉암사 정신 현대적 계승”

안양=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기치 아래 진행된 봉암사결사의 의례·법당 장엄 개혁 정신을 한마음선원이 계승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은 3월 14일 한마음선원 안양본원 3층 법당에서 열린 ‘대행선연구원 제26회 계절발표회’에서 발표한 ‘봉암사결사 정신 계승의 일면-한마음선원의 법당 장엄과 신행 의례’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봉암사결사는 성철 스님과 청담 스님을 중심으로 한 수좌 50여 명이 1947년 10월부터 1950년 3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진행한 불교 운동이다. 최 연구원은 봉암사결사의 ‘의례’ 측면에 주목했다.

그에 따르면 봉암사결사에서는 스님이 기복적으로 불공하는 관행과 축원이 금지됐고 신도가 스님에게 삼배를 하도록 했다. 또 복잡한 천도재 의례 대신 〈금강경〉과 〈반야심경〉을 독송하는 것으로 했다. 산신각, 칠성각 등 불교와 관계없는 전각과 의례를 폐지하면서 신중탱화를 없앴는데, 이와 함께 중단 예불이 폐지되고 〈반야심경〉 독송으로 바뀌었다.

최 연구원은 “봉암사결사에서 실행됐던 의식·의례·규칙 등은 이후 조계종단에서 관행화됐고 전국의 사찰에 보급돼 보편적인 불교의례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면서 “이처럼 봉암사결사의 의례가 한국불교에 미친 영향은 엄청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현재 조계종에서는 예불 등의 일상 의례는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지만 법당을 장엄하는 방식이나 전각을 건립하는 부분에서는 봉암사결사 정신을 따르고 있지 않다”며 “일선 사찰에서는 신중단은 물론 영단을 조성하고 천도재나 생전예수재 등이 중요한 의식으로 자리 잡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봉암사결사가 보인 의례·법당 장엄 개혁 정신을 한마음선원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게 최 연구원의 주된 논지다. 최 연구원은 한마음선원의 신행 의례 중 △새해맞이 촛불재 △법당 인등과 연등 △천도재를 계승의 사례로 꼽았다.

그에 따르면 한마음선원은 정초기도 대신 ‘새해맞이 촛불재’를 음력 1월 1일부터 3일간 봉행한다. ‘기도라는 이름을 쓰지 말라. 상대를 놓고 비는 게 기도’라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에 따라 이뤄지는 촛불재는 “초를 켜는 행위를 마음의 불을 밝히는 것으로 상징해 자신의 불성을 발견하게 하려는 의례”로 “한마음선원에서는 기복적 ‘기도’가 자기 수행의 ‘정진’으로 대체돼 매월 음력 초하루와 보름에 3일 동안 ‘한마음 정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게 최 연구원의 설명이다.

또한 한마음선원에서는 인등은 물론 어떤 등(燈)도 장엄하지 않고 부처님오신날과 백중에만 3일간 달고 있다. 이 역시 ‘마음의 심지에 불을 당기면 바로 인등’이라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으로 최 연구원은 “마음의 등을 밝히는 것으로 의미를 전환시켜 스스로의 주인공을 찾는 일을 강조하는 신행”임에 주목했다.

천도재 역시 한마음선원은 위패에 일체 조상을 모시고 재의 상차림을 ‘육법공양’에 근거해 차린다. 한마음선원의 육법공양은 초, 다기물, 향, 꽃, 과일, 공양(우주떡)으로 최 연구원은 “천도재의 핵심인 육법공양의 의미를 대행 선사는 공양을 올리는 사람의 마음과 공덕으로 다른 이들에게 이익을 주는 일로 설명하고 있다”고 봤다.

더불어 △대법당 이외 어떠한 형태의 전각도 조성하지 않는 점 △신중단을 아예 만들지 않는 점 △복잡한 천도재 대신 육법공양 상차림과 최소한의 의식만 봉행하는 점도 계승의 사례로 제시했다.

나아가 최 연구원은 “한마음선원의 의례는 봉암사결사의 정신이 대중화하지 못했다거나 현대인의 삶과 정신세계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해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봉암사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한마음선원이지만 실제 신행에서 그 정신의 원류를 충분히 계승하면서도 일반 신도들도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의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런 점에서 한마음선원이야말로 봉암사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산인문예술학당 대표 동광 스님을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계절발표회에서는 이경희 동국대 연구교수의 ‘법장 ‘십지품’ 해석과 세친의 영향’도 함께 발표됐다. 이날 이 교수는 세친이 지은 〈십지경론〉과 법장이 지은 〈탐현기〉 ‘십지품’의 구성과 내용을 비교 분석했다.

발표회에 앞서 열린 개회식에서 한마음선원 이사장 혜수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대행 선사께서 신도들에게 생활 속에서 진리를 찾고 불교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도량을 여시고 길을 보이셨다”면서 “한마음선원의 행사와 장엄물, 의례가 종단이나 일선 사찰들과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결국 부처님을 향한 자기 내면을 향해 바른 길로 이끈다는 점은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자리를 통해 봉암사결사에 대한 감사한 마음, 대행 선사께서 생활 속에서 불교를 알고 나를 찾아가고 세상을 밝히는 길로 이끌어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다시 한 번 새겨보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행선연구원장 혜선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대행 선사가 내보이신 대행선을 선양하기 위해 설립한 대행선연구원이 올해로 개원 10주년을 맞았다”며 “그간 인연됐던 학자와 스님들, 신도들께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린다”고 전했다.



최원섭 대행선연구원 연구원이 3월 14일 ‘대행선연구원 제26회 계절발표회’에서 ‘봉암사결사 정신 계승의 일면-한마음선원의 법당 장엄과 신행 의례’를 발표하고 있다.

황룡사지 발굴 50주년, ‘시민 대담’ 열린다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
3월 26일부터 4회 진행

신라 최대 국찰(國刹)인 경주 황룡사지 발굴 50주년을 맞아 연구자와 시민들이 함께하는 대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립문화유산연구원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소장 임승경, 이하 경주연구소)는 “‘시민들과 마주 앉아 나누는 신라에 관한 이야기, 대담신라(對談新羅)’를 올해 네 차례에 걸쳐 진행하기로 하고, 첫 번째 행사를 오는 3월 26일 오후 6시 30분 경주 오릉 인근 카페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경주연구소가 2018년부터 시민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대담신라’는 실제 문화유산 현장에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하는 직원이 시민들과 함께 차를 마시며 신라의 역사와 문화유산에 관한 생생한 이야기를 나누는 문화유산 토론의 장이다.

올해 ‘대담신라’는 황룡사지 발굴 50주년을 맞아 △찬란했던 황룡사의 흥망성쇠(3월 26일, 최준식) △황룡사로 온 생선-1300년 전 신라의 택배(5월 28일, 김솔범) △우리가 몰랐던 황룡사지 발굴 이야기(8월 27일, 엄성현) △흙 속에서 과학으로-황룡사지 출토 유물 보존이야기(11월 26일, 정규덕) 등 네 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경주연구소는 “신라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문화유산을 누릴 수 있는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반야불교문화硏, ‘산사인문학 강좌’ 개설

4월 11일부터 6주간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서

(사)반야불교문화연구원(이사장 지안 스님)은 4월 11일부터 5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 양산 통도사 반야암 설법전에서 ‘제9회 산사인문학 강좌’를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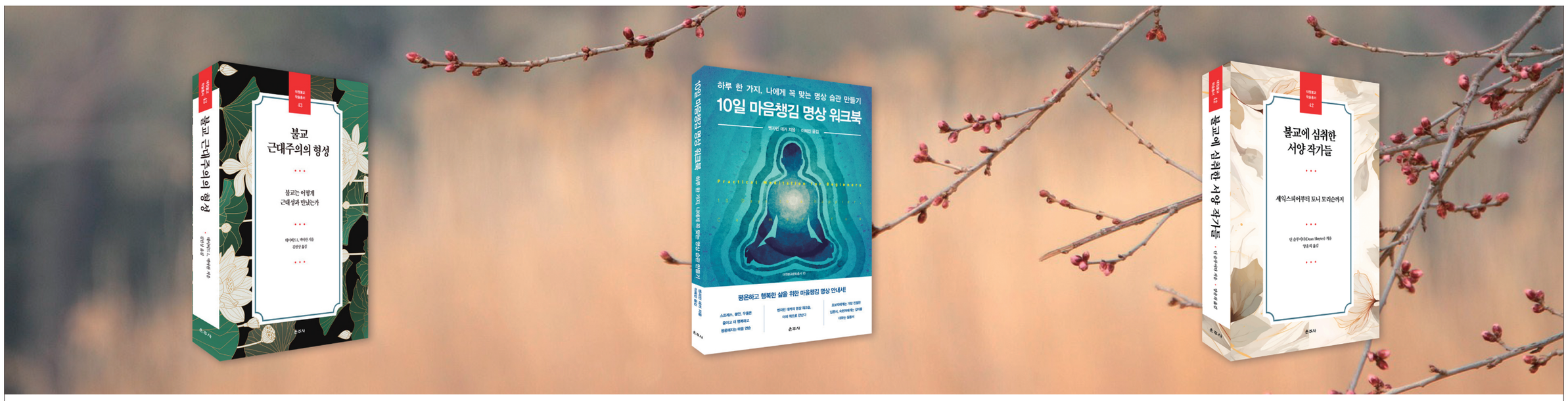
‘변하는 시대,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인문학적 사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기술 문명의 범람 속에서 자칫 상실하기 쉬운 인간성의 본질을 불교적 통찰과 인문학적 시각으로 풀어내기 위해 기획됐다.

강좌는 예술과 역사, 미래 기술을 관통하는 6개의 소주제로 구성됐다. 주요 강좌로는 △4월 11일 인드라 스님의 ‘트로트에 담는 경건한 불심’ △4월 18일 신한균 도예가의 ‘법기도자기, 진품의 복원과 창조’ △4월 25일 임재욱 경북대 교수의 ‘삼국유사, 사실을 넘어 진실 전하기’ △5월 2일 윤지영 동의대 교수의 ‘100세 시대, 늙음의 품위에 대하여’ △5월 9일 보일 스님(AI 부디즘 연구소장)의 ‘AI 시대와 AI 부디즘’ △5월 16일 민영현 부산대 외래교수의 ‘환단고기, 진위론에 대한 역사철학적 토론’ 등이 진행된다.

반야불교문화연구원은 “변화를 수용하되 현상에 매몰되지 않는 지혜가 있을 때 비로소 창조적 삶이 가능하다”며 “이번 강좌가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매는 이들에게 확고한 가치관을 심어 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강좌는 무료로 진행된다. 010-8738-3000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현대 불교 연구의 지평을 넓힌 역작!

불교 근대주의의 형성

흔히 ‘오래된 전통’이라고 여기는 불교의 모습 중 상당수가 사실은 근대의 서구철학, 과학, 심리학 등과 상호작용하며 형성된 역사적 산물임을 치밀하게 밝혀낸다.

데이비드 L. 맥마한 지음, 김한상 옮김/신국판/524쪽/값 32,000원

누구나 쉽게! 실용적인 명상 안내서!

10일 마음챙김 명상 워크북

하루에 한 가지씩 10일 동안 10가지 명상을 체험해봄으로써, 나에게 알맞은 명상법을 찾아내 이를 자신의 일상에서 손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벤자민 W. 데커 지음, 이혜진 옮김/국판/184쪽/값 15,800원

셰익스피어부터 토니 모리슨까지!

불교에 심취한 서양 작가들

저명한 서양 작가 22명의 작품에서 불교적 가르침을 찾아내 “불교는 어렵고 고리타분하다”는 편견과 “고전 문학은 지루하다”는 선입견을 동시에 깨부순다.

딘 슬루이터 지음, 양윤희 옮김/신국판/544쪽/값 32,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